

출장보고서

1. 출장 개요

- ☐ 목적: 본원의 대표공동과제와 기재부의 국가중장기전략수립과제의 심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 공관의 주재관, 연구인, 국제기구직원 등과의 회의를 개최
- ☐ 출장지: 중국 북경
- ☐ 출장자: 강동수, 안자연(이상 KDI), 안유화(KCMI), 이준엽(인하대), 지만수(동아대), 최필수(KIEP), 장영석(성공회대), 한광수(송도테크) 등 8명
- ☐ 기간: 2012년 7월 24일~25일 (1박 2일)
 - 출장 일정
 - * 7월 24일(화) 출국 (김포 → 북경), 연구진 회의
 - * 7월 24일(화) 국제노동기구 직원 면담
 - * 7월 24일(화) 한국상회, 현지기업인과의 회의
 - * 7월 25일(수)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공사 외 7명과의 회의
 - * 7월 25일(수) SK경영경제 연구소 대표 외 7명과의 회의
 - * 7월 25일(수) 귀국 (북경 → 인천)

2. 출장 활동 내역

- ☐ 연구진 사전회의
 - 제목: 대표공동과제와 (신흥국성장잠재력)국가중장기전략수립과제 연구진 사전 회의
 - 장소: 중국 북경 小南國
 - 주최: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회의목적: 금번 출장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진 사전 회의

□ 사회자: 강동수(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1. 7월 24~25일 양일간 4차례의 회의 진행 예정

○ 국제노동기구(ILO)

- 중국의 노동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이창희 박사로부터 강의를 청취

○ 한국상회, 기업인과의 회의

- 정영록, 백범흠(대사관), 이승신(KIEP), 조영조(한국수출입은행), 임호열(한국은행), 신선영(KITA), 서의경(대한상공회의소), 한정수(울촌), 김홍수(한국상회), 이태석(삼양), 유현(천해성) 共12명
- 기재부 중장기 전략 보고서의 중간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의 현실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주재원 및 기업인과의 회의 개최

○ 재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

- 강동수(KDI)외 본 과제 연구진 7인, 정영록, 백범흠, 백용천, 권석민, 박제현, 서동욱, 맹성규, 김정, 이성환(대사관) 共16명
- 페이퍼 작성의 현실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현지 공관과의 회의 개최

○ SK경영경제연구소

- 강동수(KDI)외 본 과제 연구진 7인, 왕윤종(연구소소장), 최낙섭(종합연구부부장), 홍정의(공공사무부장), 김유석(부총재), 황웨이(종합연구부경리), 송지엔(종합연구부연구원), 김시내(ICT연구팀연구원) 共15명
- 현지 연구인과의 회의를 통해 중국의 경제 환경 및 정치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중장기 발전방향 토론

2. 회의 준비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조정

- 분야별:

산업: 지만수; 무역: 최필수; 금융: 안유화; 지역경제: 이준엽; 노동: 장영석, 한광수; 총괄 및 진행: 강동수

- 질문 정리:

각 분야별 핵심 포인트 위주로, 질문 방향과 수를 조정

□ 향후일정 및 의견제시

- 회의 장소가 넓고 인원이 많아 혼란이 예상되는 회의가 있을 시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근거리에 자리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 양일간 회의 일정이 많아 개별 조사 시간은 따로 없을 가능성 높음

□ 국제노동기구 직원 면담

○ 제목: 중국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변화 추세

- 장소: ILO 북경사무소
- 주최: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회의목적: 노사관계, 도농 노동변화, 지역 간 노동변화, 고령화, 농촌 잉여 노동력 고갈, 노동시장 학력 상승, 중국의 노동변화에 따른 한국 노동시장의 향방에 대하여 강의 청취

□ 발표자: 이창휘 (ILO)

1. 국제노동기구(ILO)의 중국내 주요 활동 소개

- 중국 정부 정책 자문
 - 분쟁조정절차, 노동법, 단체협상 등
 - 2006년 7월 29일 월마트노조
 - 2008년 고용계약법(노동자, 농민공, 권리강화) 체결

2. 중국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변화 추세

○ 노사관계

- 2007년 혼다 파업을 계기로 시작됨 (광둥성)
- 대표 노조: 월마트, 폭스콘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사건)
- 2008년 고용계약법 개혁이후 집행 불안정
(노사관계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작업장 환경 여전히 열악)
- 왕양: 노조직선제 등 다양한 시도 중
- 형식적인 경우가 허다하나 가짜 노조는 줄어드는 추세

○ 도농 노동변화, 지역간 노동변화, 고령화, 농촌 잉여 노동력 고갈

- 농민공, 도시출신 노동자 임금수준 차이가 2005→2010 많이 줄어듦
- 중국 실질 임금은 근 7~8년간 급상승
(이는 그러나 세계 통계에서는 착시현상을 이유로 고려하지 않음)
- China 2030(world bank, 2012), '轉折期的中國收入分配' 책 참고

○ 노동시장 학력 상승: 大轉(2년제 전문대)이 현장관리자로 투입되는 상황 확산

- 산업시장의 학력 고도화로 산업환경이 불안정해 질수 있음
- 大轉의 상당수가 2세대농민공이고 그들이 느끼는 차별이 문제가됨

○ 노조의 임금협상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에서:

- '통계는 긍정적, 사례연구는 비관적, 기업조사는 중간' 이라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음
- 노조有: 법률준수와 사회보험 납부율이 높아지며 노동자 이직률이 낮아짐
- 11·5 내수진작→12·5소비진작: 소득격차 완화, 노동자 임금소득

의 배진 → 2008~2009 사회안정정책(노사관계) → 최저임금 조정

∴ 노조 관련 제도와 파업은 유기적으로 얽혀있음

2. 한국의 대응방안 예측

○ 중국의 노동변화에 따른 한국 노동시장의 향방

- 식당과 한국미용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 또한 재중 한국 미용사의 만족도가 높은 편
- 서비스 산업과 문화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노하우 수출개발 등이 필요함

□ 질의응답:

Q. 국제적 노사관계 변화 형식이 있는가? 노사관계와 사회가 조화가 되는 것인가? (지만수)

A. 나아지고 있는 추세

A. 前 억제, 快해결 → 現 협상; 2006년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과 2010년 협상을 통한 임금인상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이 진전 중임을 알 수 있음

Q. 경제발달 지역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려운 지역과의 임금 격차 심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준엽)

A. 신장의 노동임금이 오른 이유는 서부대개발로 인한 노동력 부족임. 경제성장률도 서부가 더 높고 임금상승 역시 이 지역이 높음. 임금 격차 심화가능성은 낮음.

Q. 표면화는 언제쯤 실현 가능한가? (장영석)

A. 2001년 노동조합법 제정

2004년 최저임금조례수정(최소 2년에 한번으로 추가됨)

2008년 노동계약법(농민공의 법적대상자 실현)

現 노동계약법 부분 개정 중: ①파견업체 규제(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②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노사관계법의 전국적 차원의 법제화는 정치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많음

Q. 광동성 임금협약을 절강성 등과 비교를 해보면? (장영석)

A. 클러스터의 성격과 자본의 성격이 다름:

광둥, 심천: 외자기업

절강, 장수: 현지 출신 자본로 인해 關係가 존재

업종별 협상방식: 중국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중요(직투기업 통제X)

- 국영기업은 關係로 인해 단체행동 미연에 방지, 외국기업은 소통 문제로 인해 문제 발생

- 국영독점기업에서 파견문제 발생 심각

업종별 임금협상이 가장 발달한 지역 (강수성 합판 생산)

- 사영기업에서 임금 협상이 잘 됨

Q. 장기적 고용창출 해소와 노동력부족증가에 대하여? (최필수)

A. 국무원은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최근에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고용인력을 줄여가고 있어서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족함

A. 기대수입에 미치지 못해 취업난에 봉착한 대졸자 문제가 가장 심각, 노동부의 고용정책의 우선순위가 대졸자 취업 후 노동력 해소임

A. 7%성장 하에 공급부족문제 발생에 대하여는 퇴직연령증가 논쟁 중

Q. 위기 이전과 이후(시장차원 접근을 시작) (악)임금상승→투자감소, (선)임금상승→소비증진 두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생계적 임금문

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임금 문제인가? (강동수)

A. 노조가 협상에 의한 업종 최저 임금을 만들었고, 그 이후 최저임금 계속 상승 중. 전반적인 노조 배후에는 정부가 있음. 노사 관계 등 모든 것이 맞물려 있음. 농민공들이 귀향하고 있고 체계가 안정되고 있음

A. 필수소비 생계비의 상승과 필수 소비항목의 상승으로 인한 임금 문제임. 특히 임금상승의 압력은 물가상승보다 필수소비항목의 상승과 관련이 높음

Q. 노중에 따른 사회불안과 정치 압력이 2015년 안에 어떻게 분출 될 것인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강동수)

A. 한국타이어 노조주석이 임금상승의 현수막을 내렸더니 협상이 타결됨. 한국에서 이러한 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움. 이는 지배자들의 해석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임. 약한 신호에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음

A. 국진민퇴(정부), 노동임금·소비(노동자)는 상호적이고 유기적임. 정당성의 위기는 위·아래 모두에서 올 것임

□ 의견제시

○ ‘轉折期的中國收入分配’ 책 참고

□ 한국상회 및 현지기업인과의 회의

○ 제목: 중국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변화 추세

- 장소: 중국 북경 캠프스키 시안룸

- 주최: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회의목적: 한국상회 사무국장, 한국은행 대표, SK신사업 개발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중국의 현재 정치 경제의 상황을 판단하고 단기, 중장기적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함

□ 발표자: 유현(북경천해성장식유한책임회사 총경리)

1. 재중국 중국중소기업의 어려움

- 前 외국기업의 특혜가 現 점차 사라지는 추세
- 關係로 인해 외국기업이 불리한 상황
- 한국 인력 수급에 visa, 보험 등의 부담이 심화 됨
- 자금 운용이 어려움 (금융권의 돈을 사용하기 어려움)
 - 외국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계기업의 부동산담보를 꺼리며 개인간의 대출 관계는 법적으로 불가능

□ 발표자: 이태성(친황도삼양건강·에너지·식품유한회사 이사장)

1. 사업현황 및 전망

- 석유화학
 - 이전 한국에서 석유화학을 하던 때에 한국산에 대한 수요 큼
 - 중국에 170~180만톤 공장을 지었고 초기에는 사업이 번창
 - 이후 중국이 400만톤 공장을 지었고 사업에 영향을 받음
 - 現 식품 (콜라, 하이포트콘실(단맛나는 것) 제조)
 - 초기에 사업번창했으나 現 중국이 400만톤 생산 중
- 한국에서의 대 중국 수출은 점차적으로 어려워 질 것

□ 발표자: 홍정의(SK 신사업 개발부 부장)

1. 사업영역

- 한국의 기존 사업 전략은 실패
 - SK 주 사업인 통신 분야는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실패
 - 네트워크, 부동산 투자(상해 Expo부지 투자) 등으로 영역을 전환

- 부동산 화학 · 공업품 사업은 실패

□ 발표자: 조영조(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소장)

1. 중국 금융의 제도 현황 및 추세

○ 변화 추이 및 현황

- 예대율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음
- 아프리카 중남미에 공격적 투자 중
- 수출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음
- 대외협력기금이 2004년에 중단됨. 동부 연안에 진출 한 곳이 없음

○ 향후 보완 사항

- 중서부 진출 시 기관에서 차관해주면 도움이 될 것임

□ 발표자: 임호열(한국은행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1. 현지 체감 중국 경제

○ 24분기~44분기 성장률: 7.0, 7.8, 8.0% 정도

- 유럽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경기 대응이 늦었다는 목소리)과 몇 년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
- 중국 잠재 성장률의 하락 전망

○ 12·5 소비의 성장을 잡겠다는 방향 설정이 옳음

-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윤율이 상당히 높음
- 기업이 이윤창출에 충실함으로 임금상승에 긍정적
- 규모가 일시적으로 우리보다 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산력과 소비력이 떨어 질 것: 소비성장속도가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2. 미래 전망

- 자크마틴의 'when china rules the world'에 따르면

- 성장률 상승보다 개도국이 선진화 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이 세계패권을 잡으면 중국식Global Rule로 바꿀 가능성 높음
- 장기전망은 중국 내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움
- 여러 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엔진역할을 대체할 국가는 없다고 판단 (인도보다도 더 낙관적)

□ 발표자: 한정수(법무법인 율촌 북경대표처 대표)

1. 사업 현황

- 한국 금융시장 확장 뿐 아니라 변호사 업계도 확장 필요
 - 작년 3월 북경사무소 설립 (정식허가 받은 변호사사무소: 상해 4곳, 북경 4곳)
 - 높은 관심에도 진출을 꺼리는 이유: 로펌 수익성이 떨어짐, 한국기업이 한국로펌을 많이 찾지 않음(비용절감, 접근방법 상이), 중국 정부의 법률체계화 및 시행이 잘 되지 않음

□ 발표자: 신선영(한국무역협회 북경대표처 대표)

1. 재중국 기업의 어려움

- 중국 당국에서 (실적을 위한) 단속 시에 외자기업을 집중 검사함
 - 꼬투리 잡기 식 단속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 한국 기업의 잘못된 사례 (백화점 외국 브랜드 유치담당자 인터뷰)
 - 한국 기업은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 새로운 개발은 하지 않고 규모 확대에만 집중

□ 발표자: 김홍수(중국한국상회 사무국장)

1. 한국 상회 활동 내용 및 체감 중국 경제 진단

- 수교 다음해에 설립, 한국 상회 중 유일하게 중국허가 받은 상회 (27개 상회조직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 現 왕윤중(SK)회장

- 한국기업 5만개 중국 진출, 7천여 개 가입
 - ①중국내 생산, ②한국 내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 ①위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접근, ②내수시장 검토 필요
 - +alpha의 개발이 필요함
 - 기술은 한국이 우위에 있지만 원자재는 중국이 풍부함
 - 중국은 기술의 복제에 뛰어나므로 alpha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2. 재 중국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국가공부자의 전문성 부족과 짧은 임기가 문제 됨
 - 정책 · 지원 등의 연속성 부족
 - 지속적인 근무가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 발표자: 이승신(KIEP 북경대표처 수석 대표)

1. 북경사무소의 역할 (17년)

-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의 교류
 - DRC, NDRC, AMR, 사회과학원 공업교육연구원, 상무부 아시아연구소, 대외경제WTO센터 등
- 한 달에 두건 현지 이슈 브리핑
- 두 달에 한번 주요 강사 · 기업인과의 한중경제 세미나 개최

□ 발표자: 서의경(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연구위원)

1. 내부통계기본 CSR

- 정부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양
- 사회과학원의 경제 · 기업책임백서에서 기업평가는 작년 중앙기업 30%인데 반하여 한국기업은 8.4%로 한국기업평가가 현저히 낮음
 - 한국기업은 CSR을 활용하여 외형을 갖추는 것이 부족

2. 기관 역할

- 한국기업이 잘하고 있는 CSR 활동을 모아서 외형적인 것을 보충하는 역할
- 중국제도는 운용상 문제가 많지만 외형을 갖추는 중국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 관건

□ 발표자: 정영록(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공사)

1. 2030→2020, 전망→가설대응

- 10년 전에 토론하던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음
- 전망에 대한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의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

2. 중국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 친금수강산, 친실크로드 프로젝트
 - 한국 여행상품 전략화
 - 유통시장·네트워크 활용 및 부동산 시장의 전략적 투자

□ 토론

Q. 산업: 산업고도화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중장기 전략에 영향을 미침. 산업의 핵심 주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만수)

Q. 무역: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지는데 타계해야하는가? 내수시장의 유통채널과 금융조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 기술로 중국의 중소기업과의 합자가능성은? (최필수)

A. 조영조 수출입은행:

-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민영기업이 할 것 (국영기업의 한정성)
- 수출시장을 줄이는 것은 어려움, 내수시장에 대하여 중서부 내륙의 유통망 확충 필요, 외상거래(어음)가 많은 것을 감안한 금융거래 (중국은 담보가 없음)

A. 임호열 한국은행:

- 중국 자본이 동부에서 중서부로 이전 추세 (동부성장률<중서부)
- 기술격차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고급기술만 공략할 수는 없음. 서민층을 겨냥한 하위시장을 초기할 수 없음

A. 유현 실내장식:

- 중소기업은 담보가 있어도 절차가 까다로워 시기를 맞추기 어려움
- 중소기업은 대체로 합작 시에 어려움이 많음

Q. 지역경제: ①동부도시,서부도시, 동부농촌, 서부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②지역적 산업 분할이 가능한가, 기존의 지역별 산업중복이 계속 될 것인가? ③유망 진출지역 혹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는가? (이준엽)

A. 한정수 울춘, 백범흠 참사관:

- 중국의 미래 변수는 철도망: 철도망 건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 고속도로가 2백배가 늘었음

A. 김홍수 한국상회:

- 신장성의 카쉬카르를 서부의 심천으로 만들겠다는 중국당국의 의지가 있음. 지금 투자·교류를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을 것

A. 조영조 수출입은행:

- 1·2·3선 도시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중서부로 나누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중서부와와의 지역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Q. 노동: 난하이 혼다 파업 후의 임금인상과, 노동력부족 등이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데? (장영석)

A. 이태석 삼양:

- 노동력 부족이 피부로 와닿음, 적재적소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음: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함
- 정부주도로 20% 임금 인상되었음, 이에 영향이 상당함

- 노동운동: 중국 엘리트 대학생은 노동에 관심이 없음. 사회불안으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 지역적·민중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A. 조영조 수출입은행:

- 노동력 부족문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다름: 중소기업은 흑룡강까지 가서 인력을 데려오는 상황
- 사회불안: 공회는 공산당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당분간 크지 않을 것. 但 외자기업은 주의 요망

□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회의

○ 제목: 중국 2030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미래

- 장소: 대사관 회의실 및 北京沸騰魚鄉餐飲有限責任公司
- 주최: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회의목적: 현지 공관과의 회의를 통하여 중국2030 장기전략 페이지 작성의 현실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

□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미래 (백범흠 참사관)

○ 중국개황

- 면적, 인구, 수도 등을 설명

○ 중국의 부상

- 2001, 2011년 비교: 경제규모, 소비, 외환보유액, 과학기술, 교통 등
- 국제적 위상의 변화: 교역순위, 특허, 군사력, 위안화 국제화 등
- 급속한 부상의 배경: 개혁개방 이후 해외자본 유입
- 12·5 주요내용: 포용적 성장

○ 중국의 문제점

- 정치, 경제, 사회: 통치체제의 내재적 문제, 부패, 법제화 미비, 국영기업 비중 과다, 지방정부 부실채권 등

- 소수민족과 종교: 신장, 티베트, 내몽고; 파룬궁 등
- 외국과의 관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미국; 대만 등
-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
 - 정치성향: 신중국 성립 이후 출생, 청년기 문화대혁명 경험, 대학 과정을 이수한 개혁개방의 수혜자 등
- 한·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위안화 국제화 (백용천 공사함참찬, 이성환 서기관)

- (인민은행에서는) 의도적, 인위적으로 국제화 추진은 하지 않을 것
 - 규제를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추진할 것
 - 시행 시에 부작용이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할 전망
 - 10~20년 보다 더 장기화 될 예상
-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 될 전망
 - 現무역결제 → 자본계정자유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견해
 - ①유럽사례를 비추어 천천히 ②내년에 추진(금융계, 소수)

□ 내수시장 (맹성규 공사참찬)

- 한국은 중국 내 대규모 개발에 참여 하기 어려움
 - 면허 제한, 인적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참여가 어려움
- 부동산
 - 외국 정부와 합작 프로젝트
 - 도시화 진전
 - 중국 땅 값 계산이 불명확 (협상에 따라 변함)
- 물류

- 중국 내륙 물류시장의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관건
- 중국 네트워크로 중국 밖의 시장에도 참여 가능
- 우리 네트워크를 중국과 연결시킨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

□ 특허 (서동욱 특허관)

- 2008년부터 지적재산권 시작
 - 10년 전에는 특허 관련 제도는 있지만 운용방법을 몰랐던 나라
 - 3년 전부터 특허 담보대출을 시작함
- PTC 국제 특허는 現4위, 올해 3위 예상, 5~8년내 1위 전망
-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의 노동 등의 서적 참고 시 유용할 것

□ 중장기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특허, HR (권석민, 백범흠)

-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주기술혁신능력이 떨어짐
 - 但 자주기술혁신에 성공하면 10~20년 후 중국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함
 - 現외국의 선진기술 가져오는 전략과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중
- 대 중국 진출 전략:
 - 주요 성별로 거점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보 수집, 전략 수립
 - 북한인력활용 정책 검토 필요
- 인재전략
 - 교육개발, 해외 고급 인재 유인책(연30만 명)

□ 무역: 관세 (김정 관세관)

- 비관세 장벽
- 가공무역: 중국에 초창기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부분
 - 가공무역 ↓ → 일반무역 ↑ (2008년부터)

- AEO 우수기업인정 (세관)

- 국가간 상호 AEO를 똑같은 기준으로 기업에 부여

- 경쟁정책 (박제현 경쟁관)

- 한·중·일 3국 간의 카르텔

- 중국 공정위 한국 대표단 방문 등을 통해 한중교류강화

- MOU 내용 수정 보완

- 경쟁정책에 초점: M&A 심사강화 측면, 가격 담화 규제(물가안정)

- 현지 연구인 회의

- 제목: 중국의 중장기 발전방향

- 장소: SK경영경제연구소 북경사무소

- 주최: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회의목적: 현지 경제연구인과 중국의 경제 환경 및 정치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현지 진출 전략, 현지화의 어려움 등을 청취

- * SK의 실패사례와 그를 통해 구축된 현재 사업 방향을 청취하고 한국기업의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함

- * 산업 고도화와 지역별 산업구조를 통해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복투자 등 중국의 산업정책을 되짚어 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연구

- 재 중국 SK의 역할 (왕윤종, 김유석)

- Open Business Platform: Brand Value와 현지화를 이용

- 關係(정부)제공

- 규제완화 해결

- 지방정부의 필요를 파악한 후 한국의 중소기업과 연결시켜 상생
- 토양정화기술, 환경폐기물: 중국기관과 합자형식
 - 現21개 중소기업과 MOU체결
 - 중국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상생

□ 실패사례 (왕윤중, 최낙섭)

- copy & paste는 실패
 - (핸드폰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목 제외)
-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성공했지만 중국에서 현지화 필요
 - 사업모델의 현지화: 중국 고객
 - 인력의 현지화
 - 의사결정권한이 현지에 있어야 함
 - 경영시스템의 현지화

□ 질의응답:

Q. 한국기업의 중국현지화의 어려움과 같이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내 국유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A. 중국의 국외 영업 역시 순조롭지 못함. 건축기업의 대외 투자 같은 모든 기업이 실패를 많이 함 (황웨이)

A. 국유기업은 중국의 재정수입이기 때문에 신규산업 진출보다 현재 상황 유지가 목표 (최낙섭)

A. 중앙관리위원회는 사업다각화를 규제함. 오히려 M&A를 통해 국유기업의 독점이 더욱 심화됨. 다각화 보다 대형화가 중요. 전략적 신사업 개발확장 보다는 유지·효율화를 중시 (왕윤중)

Q. 산업고도화와 생산성 상승의 관계? 지역별 산업구조?

A. 독점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이 필요함. 그러나 독점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왕윤중)

A. 現 지역보호주의, 지역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낙섭)

A.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제시하는 산업목록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

Q. 임금인상 압박?

A. 급여보다 사회보험 부담이 늘고 있음 (최낙섭)

A. 중·서부 농민공의 차이가 크고, 동부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

동부: 수입 높지만 지출역시 높음

중·서부: 외출 노동력이 낮지만 성내의 노동력 이동은 정상범위

(송지엔)

Q. 부동산 시장 현황 및 부동산 버블과 3선 도시에 대규모 상업시설 버블 문제?

A. 기존 주택 거래량 증가, 상업용 빌딩은 공급 부족 상태

PIR 전국적 7.4, 북경 11.9

A. 세금 혜택을 늘려 기업투자 증가 (주택은 빈 곳이 많음) (최낙섭)

Q. 예상외의 활력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A. 심양, 성도에서 1000km²의 산을 평지 화하는 사업 추진 중,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곳이 상당함 (최낙섭)

Q. 기업 전략을 수립 할 때 사회적인 변화(고령화 등)를 반영하는가?

A. 지역문제를 배재할 수 없음. 지역별 접근방식이 다름. 그러나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투자·환경에 집중함

중국 밖에서는 중국의 경착륙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현재만 바라봄 (최낙섭)

Q. 생산직에 大專이 많아졌는데, 노동운동 가능성은?

A. ①농민공의 학력이 높아짐

前가정이 있는 농민공: 가족부양 책임, 기본적으로 반항 하지 않음
現젊은 층, 문화수준 높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부를 원함, 반항성향이 높음

②공회

중국 노조는 당원이며 형식적임. 반항에 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황웨이)

Q. 중국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있다면?

A. 경제방면: 경제모형의 변혁 필요

A. 부동산: 집이 없으면 호구가 없음. 아이 생산 불가. 이에 따른 반항 의식 역시 높음 (빈부차, 부패, 법제 불안정) (송지엔)